신 년 사

친애하는 서해도시가스 직원여러분

2008년 무자년(戊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직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2007년은 탈레반에 의한 집단피랍사건, 한미 FTA 체결, 제17대 대통령선거, 태안지역 대규모 원유유출사고 등 다사다난 했던 한해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외부의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도 모든 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매출량 3억3천만㎥, 매출액 1,900억원, 전년대비 성장률 45%라는 성과로 2007년 목표를 초과달성 하였습니다. 이는 자신감과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도전 전략이 가져온 결과라 자신 있게 말씀 드리며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 입니다.

직원 여러분

2008년은 공급비용의 인하압박과 에너지시장의 다변화에 따른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욕구 등이 항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위협들을 기회로 전환하여 한걸음 더 도약하기 위해 우리는 2008년 경영슬로건을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로 선정하여 다음과 같은 네가지 사업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 임직원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사옥을 완공하겠습니다.

현재 사옥은 2008년 4월말 준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옥은 단순히 업무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업무시스템의 혁신적 개선 및 모든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자기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신축하여 가장 근무하기 좋은 회사, 가장 좋은 복지를 실현하는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부직원과 더불어 지역주민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지역주민의 쉼터로 활용, 지역주민에게 친근감을 주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둘째, 다양한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통한 성장 ITEM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업계는 에너지 시장의 다변화에 대한 대응전략 구축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당사는 도시가스 사업에만 국한하지 않고 종합에너지 기업으로의 도약을 위해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 4월 최초로 부생가스판매사업을 시작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전폭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2011년 마무리되는 3백6십만평 규모의 석문국가산업단지 개발, KCC 등 대기업들의 공단개발, 홍성예산지역의 충남도청이전, 당진·평택 경제자유특구지정 등 대규모 개발사업 역시 추진되고 있어 당사 공급권역 내 개발지역의 사업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집단에너지사업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셋째, 2008년 핵심전략 중에 하나인 사회적 책임활동 강화로 서해도시가스의

기업이미지 제고 및 가치창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기업 경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향후 기업의 지속성장은 매출확대와 더블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환경경영, 정도경영, 사회공헌 등 CSR 활동으로 기업의 가치를 재창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007년 7월 한마음봉사단 창단식을 발단으로 매월 국민기초·저소득가정 대상 무료가스안전점검, 1교 1사 자매결연협약, 장애인시설 지원 등 많은 봉사활동을 실천하였으며, 2008년에는 한마음 봉사단의 활동영역 확대하고, 정기적인 환경정화활동 등 봉사범위를 확대하여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지역에서 서해도시가스가 함께하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장기적인 공급지역 확대를 위해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2007년까지 당사는 201㎞의 배관공사를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완료하며 신규 배관망을 통해 2008년 예산시내지역 가스공급과 2011년 태안기업도시와 연계하여 태안지역까지의 가스공급 방안을 모색, 지속적으로 도시가스 보급율을 확대할 것입니다. 공급지역의 확대 및 기존배관 주변의 영업강화로 지역주민의 에너지원으로의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직원 여러분

2008년 올해 우리회사는 도약의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도약을 위한 모든 조건 및 환경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 터전 위에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스스로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뛰어난 자도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최선의 노력을 하여 서해도시가스의 중심에 여러분 모두가 서있어야 할 것 입니다. 우리가 다짐했던 2008년 매출량 380,000천㎥, 매출액 2천350억의 경영목표를 꼭 달성하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2008년 무자년 직원 여러분 모두의 소망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1월 2일

서해도시가스주식회사
대표이사 윤 웅 하